

# 『국회 인문학 아카데미』 실시 안내

2014. 9.



의 정 연 수 원

## 1 『국회 인문학 아카데미』 목적

-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, 문화 및 인문정신문화의 다양한 테마별 인문학 강좌를 개설·제공하여 한국의 옛 정신을 바로 알리고자 함.
- 잊혀져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와 역사, 사상 등의 올바른 이해와 재조명을 통하여 현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사관과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함.

## 2 『국회 인문학 아카데미』 신청 방법

- 신청자격: 대한민국 국민(등록 및 방문)
- 모집방법
  - 등록: 모집공고에 따라 등록 신청한 사람 중 선착순 100명
  - 청강: 강의시작 30분전까지 청강을 신청하는 국회 방문객
    - ※ 강의장 좌석 여건에 따라 선착순으로 청강 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.
- 참가비용: 일정금액을 기부금으로 자유롭게 모금
- 수료특전: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 제공

## 3 『국회 인문학 아카데미』 테마별 전체 프로그램

구 분	테마별 연수 프로그램 주요 내용
1 코스 2014. 10. 25.(토) ~ 2014. 12. 6.(토)	<b>한국의 사상가를 국회에서 만나다</b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열정과 양심 그리고 지성을 갖춘 한국의 철학자이자 개혁가에게 ‘원칙’ 과 ‘의리’ 를 배운다.</li> <li>- 포은 정몽주, 삼봉 정도전, 남명 조식, 퇴계 이황, 율곡 이이, 서애 유성룡, 다산 정약용 등</li> </ul>
2 코스 2015년도 전반기	<b>한국의 개혁가에게 번뇌와 지혜를 듣다</b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 역사 속에서 변혁과 변화를 만든 사람들의 번뇌와 고민 그리고 지혜를 배운다.</li> <li>- 삼봉 정도전(태조), 하륜(태종), 정인지(세종), 한명회(세조), 김육(효종), 박문수(영조), 채제공(정조) 등</li> </ul>

구 분	테마별 연수 프로그램 주요 내용
3 코스 2015년도 하반기	<b>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역사에서 배우다</b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당쟁(黨爭)으로 오해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소통 방식과 화합의 정신을 새롭게 조명하고 배운다.</li> <li>- 황희(화합의 정신), 우곡 정경세(정치적 소통의 대명사),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(존중과 경청의 소통), 오리 이원익(상하소통의 리더십), 서애 유성룡, 화담 서경덕(신분을 초월한 소통), 남계 박세채(탕평론) 등</li> </ul>
4 코스 2016년도 상반기	<b>한국의 시대정신을 해부하다</b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 역사 속에 내재되어 전수되고 있는 한국의 정신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진정한 의미를 배운다.</li> <li>- 고구려 선배(先輩)정신, 신라시대 화랑도(花郎道)정신, 원효의 화쟁(和諍)사상, 조선 시대 선비정신, 동학(東學)사상, 민족주의, 자유민주주의 등 시대별 정신</li> </ul>
5 코스 2016년도 하반기	<b>한국의 명장(名將)을 만나다</b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세에 맞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한 한국의 대표적 명장들에게서 구국의 리더십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배운다.</li> <li>- 을지문덕, 장보고, 강감찬, 윤관, 이순신, 광재우, 홍범도와 김좌진 장군 등</li> </ul>

※ 2 ~ 5코스별 세부일정은 추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.

#### 4 『국회 인문학 아카데미』 제1코스 강의 계획

- 한국의 사상을 국회에서 만나다 -

일 자	시 간	강 의 과 목	교수진
1주차 (10.25.)	14:00 ~ 15:40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불사이군(不事二君)의 충절(忠節), 한국도학의 창시자! 포은 정몽주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(一片丹心)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- ‘단삼가’ -</p>	정구복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

일 자	시 간	강 의 과 목	교수진
2주차 (11.1.)	14:00 ~ 15:40	<b>민본(民本)으로 조선을 설계하다! 삼봉 정도전</b>  사방의 배들이 사강에 모여들어 일만 섬 곡식 용트림하듯 풀어놓네 창고에 가득한 저 곡식 보소 먹거리 낙낙해야 바른 정치라네 - ‘신도팔경시(新都八景詩)’ 중 「사강에 몰려 있는 배들」 -	박현모 여주대 교수
3주차 (11.8.)	14:00 ~ 15:40	<b>삶과 삶이 아우리진 선비! 퇴계 이황</b>  옛 성현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도 또한 옛 성현을 뵈지 못했네 옛 성현을 뵈지 못해도 그분들이 가던 길이 앞에 놓여 있네 가던 길이 앞에 있는데 나 또한 아니 가고 어떻게 하겠는가 - 「도산십이곡」 중에서 -	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
4주차 (11.15.)	14:00 ~ 15:40	<b>세상을 미리 내다보고, 개혁하다! 율곡 이이</b>  늙은이는 종신할 곳이 있고 젊은이는 쓰일 곳이 있으며, 여란이는 자랄 곳이 있고 흠비와 과부, 고아와 자식이 없는 사람, 병든 자와 불구자도 모두 부양될 곳이 있다(……) 이것을 알려 대동이라고 한다. - 『성학집요』의 위정공효(爲政功效) 부분에서 「예기의 한 구절」 -	김문준 건양대 교수
5주차 (11.22.)	14:00 ~ 15:40	<b>‘경궤 과 의의’ 로 선비정신을 실천하다! 남명 조식</b>  두류산(頭流山) 양단수(兩端水)를 네 들고 이제 보니 도화(桃花) 뜬 맑은 물에 산영(山影)조차 잠겼어라. 아희야, 무릉(武陵)이 어디메뇨, 나는 연가 하노라. - ‘남명집’ 중에서 -	박병련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
6주차 (11.29.)	14:00 ~ 15:40	<b>징비록(懲毖錄), 아픈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다! 서애 유성룡</b>  〈시경詩經〉에 “지난 일의 잘못을 주의하여 뒷날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심한다”고 하였는데, 이것이 《징비록懲毖錄》을 쓴 이유다. - ‘징비록懲毖錄’ 중에서 -	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
7주차 (12.6.)	14:00 ~ 15:40	<b>유배(流配)와 경학, 그리고 기다림! 다산 정약용</b>  “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지만, 산처럼 높고 무거운 것 또한 백성들이다. …… 백성들을 이고 투쟁하게 되면 아무리 높은 상사(上司)라도 굽히지 않을 사람이 없다” - 『목민심서』 중에서 -	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